

중소상인들 “상생 무시한 황당 판결”

■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 첫 판결 지역 반응

울 광주지법 판결과 상반

대형마트 “새 소송제기 검토”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법으로 첫 판결한 것에 대해 지역 유통업체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올해 초 광주지법 제1행정부가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와 전남 목포와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4일 지역 유통업계는 이번 판결이 올해 초 개정되기 전의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실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오히려 지자체들의 조례가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경우 이미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영업규제 자체가 논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제기한 소송과는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측도 “이번 소송은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판결로, 실제 의무휴업

해제와는 무관할 것 같다”며 “각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달라 이번 판결로 모든 제한이 풀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역 중소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하루 이를 노력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닌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라 이 같은 판결을 냈는데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과 판사를 존중해야 하겠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결정’ 등 판결 내용에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목상권 보호나 상생 등을 목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질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상인회 관계자 역시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상권 보호 차원에서 시행됐지만 사실상 그것마저도 생생 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최소한의 제재 장치라는 상징성조차 없어져버리면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시장에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크리스마스 앞두고 와인 인기

14일 백화점을 찾은 한 고객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파티나 모임에 사용할 샴페인 와인을 고르고 있다. 이번 연말에는 파티나 송년모임에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이 인기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국전력 지원으로 고국방문 기회를 제공받은 나주의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이 출국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전 제공>

‘빛가람시대’ 연 한전,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베트남 출신 여성 10명에

‘빛가람시대’를 연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나주시지역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10명에게 열흘간의 고국방문 기회를 제공했다. 지역 상생 및 협력을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는 나주시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선정했다. 한전은 고국 방문을 위한 항공료 전액

과 현지이동 비용 및 선물구입비용 등 제반비용 모두를 지원했다. 비용은 한전 임직원의 모금을 통해 조성된 봉사기금이 이용됐다. 한전은 지난 2013년부터 ‘고국방문 지원행사’를 시행중이며 지난해에는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인명 손실과 재산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민자 5가족 10명의 고국 방문을 지원하기도 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저금리시대 주택시장 ‘전세보다는 월세로’

부동산사랑방 조사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광주지역 임대주택시장에 월세 선호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사랑방(homesrb.co.kr)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과 2년 후인 지난달의 아파트 전·월세 광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월세의 비중이 현저히 늘었다.

부동산사랑방에 게재된 임대 광고 기준 2012년 11월 아파트 전·월세 광고 건수는 모두 2257건으로, 931건이 전세, 1326건이 월세였다. 반면 지난달 아파트

전·월세 광고는 모두 3379건으로 전세가 1187건, 월세가 2192건이었다. 2012년 41대 59였던 전세와 월세 비율이 지난달에는 35대 65로, 월세 비중이 현저히 늘어난 것이다.

증가 폭도 월세가 월등했다. 전세 광고 건수가 2년 전과 비교해 27.4% 증가한 반면 월세는 65%가 늘어 두 배가 넘는 증가폭을 보였다.

이처럼 임대차시장에 월세 위주로 재편되는 것은 저금리 여파로 인해 기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공정거래 분쟁 매년 급증

올해만 121건 증가... 공정거래조정원 분원 설치 시급

지난 3월 광주 지역 모 카페 가맹주인 A씨는 가맹계약이 종료되자 같은 장소에 독자 브랜드로 카페를 운영하려다 가맹본부의 판지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영업 금지의무, 즉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경쟁적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침해받을 수 있는 만큼 ‘같은 장소에서 카페를 운영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양측의 입장차는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졌다. 사실 확인에 나선 조정원은 A씨의 매장 입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점,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우려가 적고 독자 브

랜드로 인해 가맹본부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미미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분야 등 공정거래 분쟁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중)에 따르면 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북에서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2010년 55건, 2011년 67건, 2012년 108건, 2013년 136건, 올해 11월 말까지 12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2010년부터 2014년 11월 현재까지 분쟁조정 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총 482건 중 가맹사업거래가 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 128건, 하도급 85건, 약관 13건, 유통 2건 순이었다. 조정성립률도 2012년 78%, 2013년 89%, 2014년 95%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올해 들어 공정·유통·약관 분쟁은 조정이 100% 성공했다.

이처럼 분쟁조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원 설치에 절실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호남권에서 최근 5년 새 228건의 분쟁이 조정돼 78억 원 상당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뒀다”며 “분원 설치의 필요성은 있지만, 연간

운영비만 수억 원에 달해 장기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정원은 15일 오후 1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교육센터 대강의실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모두 31건의 분쟁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62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7	12	15	23	42	1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499,942,875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0,808,495				37
3	5개 숫자일치	1,382,012				1,628
4	4개 숫자일치	50,000				80,147
5	3개 숫자일치	5,000				1,323,978

■ 새 얼굴

“기가인프라 바탕 지역민에 미래융합 서비스”

유 양 환 KT 전남고객본부장

“기가(GIGA)인프라를 바탕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미래융합 서비스를 제공해 ‘기가토피아’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지난 11일 KT 전남고객본부장으로 취임한 유양환(55) 신임 본부장은 “전남고객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지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KT전남고객본부가 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고흥 출신인 유 본부장은 순천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KT 재무실 자금부장 과 전략기획실전략이행담당, 글로벌&엔터프라이즈 부문 의료론 담당 등 주요보직을 거쳤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가람(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홍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탑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